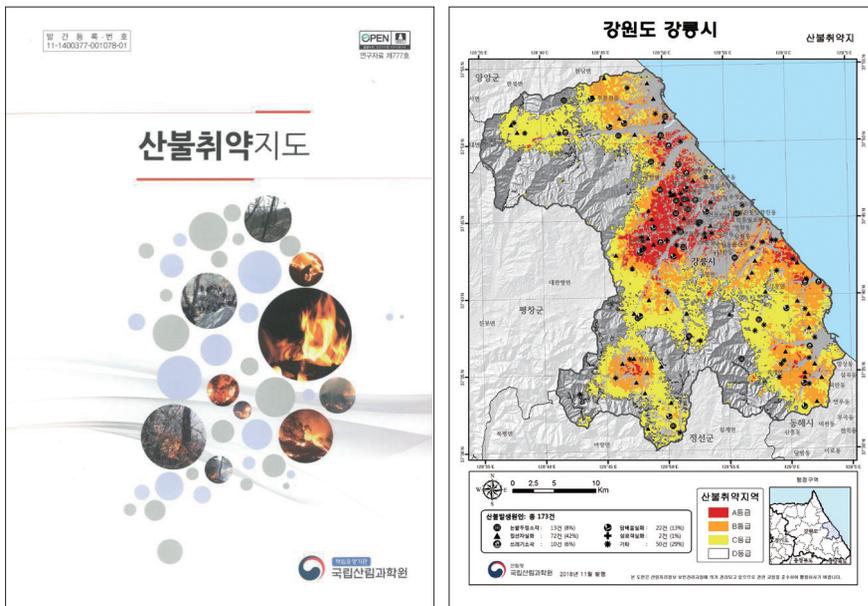


Q10 | 산불취약지도의 제작방식과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산불취약지도는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발생한 1만 1,643건의 산불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종합 분석해 향후 산불의 발생, 확산,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제작한 지도입니다. 산불취약위험지수는 산불취약지역의 근거가 되며 먼저 산불발생밀도, 침엽수림과의 거리, 인구밀도, 건물밀도, 재해약자시설의 분포, 국가보호시설의 분포를 이용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합니다. A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아 해당지역 내 산불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원의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불 예방·진화·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산불지도 6종(산불발생, 산불감시, 대형산불위험, 산불진화환경, 산불취약성, 산불복구)을 개발하여 전국에 배포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 정책 수립과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도

※출처: 안희영 등, 2018, 산불취약지도, 국립산림과학원